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11.6.(월) 조간	배포	2017.11.3(금)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(02-2100-2650)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 <hr/> 금감원 국제협력국장 임 세 희(02-3145-7890)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김 영 진(02-3145-6700)		담 당 자	장 희 진 사무관 (02-2100-2654) 민 인 영 사무관 (02-2100-2662) <hr/> 박 상 준 팀 장 (02-3145-7903) 오 상 완 팀 장 (02-3145-6711)

**제 목 : 한국,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 자산운용(C5) 및
일반투자자(C8) 정책위원회 정식 가입**

1. 개요

- ☐ '17.10월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*) 산하 자산운용(C5) 및 일반투자자(C8)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(금융위·금감원)를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

*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(은행: BCBS, 증권: IOSCO, 보험: IAIS) 중 하나로서, 127개의 증권감독당국(세계 자본시장의 95% 이상) 및 91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

- 그간 우리나라는 IOSCO의 8개 정책위원회 중 5개*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업무 수행하였으나,

* C1(회계·감사·공시), C2(유통시장), C3(시장중개기관), C4(조사·제제), C6(신용평가)

-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동 위원회(C5 및 C8) 가입을 추진하였음

IOSCO C5 및 C8 개요

- (C5) 자산운용 제도, 사모펀드, 투자자문 등 자산운용 관련 논의를 담당
 - Robert Taylor(영국 FCA)가 의장이며, 전체 회원은 33개 기관
- (C8) 투자자보호, 투자자 교육 및 금융 이해력 제고 관련 논의를 담당
 - Jose Alexandre Vasco(브라질 CVM)가 의장이며, 전체 회원은 38개 기관

2. 가입 효과

□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

-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·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
-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의 효율적인 입수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

□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

-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

□ 국제적 위상 제고

- 현재의 IOSCO 이사국* 및 5개 정책위원회 활동에 더하여 금번에 C5 및 C8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

* 127개 정회원 중 33개 국가만이 이사국 회원으로 활동

3. 향후 추진방향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C5 및 C8 가입을 계기로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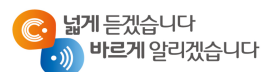
-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

□ 또한, 미가입 정책위원회(C7 상품선물시장) 가입 등을 추진하여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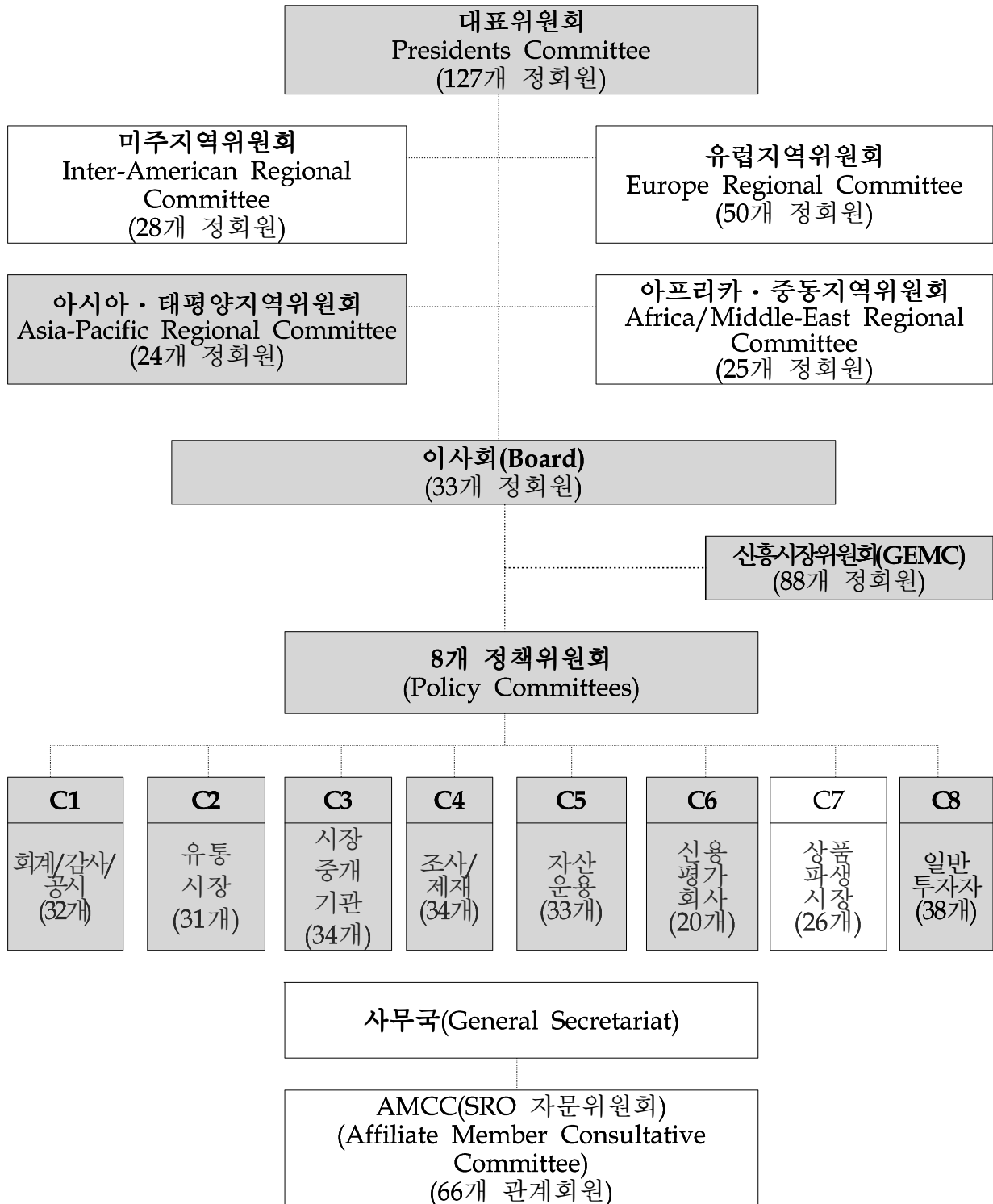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IOSCO 조직도



※ 음영부분 : 국내 가입